

한국 근대 문예지의 독자 참여 제도 연구

- 1910년대를 중심으로*

손 동 호**

요약

1910년대에 발행한 문예지를 전수조사하여 해당 제도의 시행 목적과 특징 그리고 제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독자 참여 제도의 시행 목적은 신인 발굴 외에도 매우 다양하였다. 기본적으로 독자 확보 및 독자 관리를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외에 『청춘』과 『태서문예신보』는 조선어 글쓰기의 확산과 시문체 정립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조선문예』는 한문학의 부흥과 고전 수집, 『근대사조』, 『서광』, 『삼광』, 『녹성』은 근대지식 소개와 예술 보급에 그 목적이 있었다. 끝으로 『신청년』과 『창조』는 신문학을 개척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실제로 작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둘째, 각 문예지가 시도한 독자 참여 제도는 이전 시기의 제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초기 모집 부문은 사상과 문학이 혼재되었으나 점차 문예에 집중하였다. 응모규정도 후기로 갈수록 구체화, 전문화되며 제도적인 기틀을 갖추어 나갔다. 셋째, 독자 참여 제도는 조선어 글쓰기의 확산, 문체의 정립, 문예의 보급, 작가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직간접적으로 문단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주제어 : 독자 참여 제도, 청춘, 태서문예신보, 조선문예, 근대사조, 서광, 삼광, 녹성, 신청년, 창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G081032)

**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학술연구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조선어 글쓰기의 확산과 문체 정립-『청춘』, 『태서문예신보』
3. 한문학의 부흥과 고전 수집-『조선문예』
4. 근대지식 소개와 예술의 보급-『근대사조』, 『서광』, 『삼광』, 『녹성』
5. 신문학의 개척과 작가 발굴-『신청년』, 『창조』
6. 나가며

1. 들어가며

한국 근대문학사 연구에서 제도사적 방법론에 토대를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사 연구는 대표 자료 분석을 통한 추정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학계의 제도사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독자 참여 제도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존 연구가 대표 자료에 바탕을 둔 단형적 혹은 파편적 제도사 연구를 수행해 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전수 자료 조사에 바탕을 둔 연속적 정리 및 시기별 비교 분석의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김영철과 김영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근대 초기의 신문과 잡지를 대상으로 근대 매체가 시행한 독자 참여 제도의 성립 및 정착 과정을 개괄하고, 각 제도의 성과를 선구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먼저 김영철¹⁾은 1900년대 학회지와 신문, 잡지 등의 매체로부터 현상 문예제가 초기적 발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매체가 문예란을 개설하여 독자에게 문

1)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211-238면.

호를 개방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한자강회월보』를 시발로 하여 『태극학보』, 『대한흥학보』, 『소년』 등으로 이어지는 독자투고제가 1910년대 『매일신보』의 현상문예를 거쳐 신춘문예로 정착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시기의 현상문예에 대해 장르에 대한 인식이 보이며, 문체에 대한 고심, 문학 인식의 싹이 보인다는 점과 투고에 대해 보상행위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현상문예의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김영철의 연구는 최초의 독자 참여 제도 연구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영민²⁾은 매체에 독자투고 서사물이 등장하는 과정을 독자 참여 제도와 연관해 설명하였다. 근대 초기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등의 관보는 독자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독자와 소통하려 했으나 해당 매체에는 독자투고물이 실리지 않았다. 독자투고는 『독립신문』에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정작 독자가 창작한 서사문학 작품은 한 편도 없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의 민간 발행 매체에서 독자들이 창작한 서사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편집진의 윤색을 거친 것이었다. 『장학보』와 『매일신보』는 독자들의 창작 참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학보』는 독자 현상 문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매일신보』는 현상문예를 정착시켰다. 김영민은 『매일신보』의 독자 문예 현상공모 제도에 대해 신문소설 작가군 확대, 서사 양식의 다양화, 작가 등단의 등용문으로 한국의 순문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1910년대 이후의 독자 참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비교적 많이 축적된 편이다.³⁾ 이들 연구는 근대 매체가 시행한 독자 참여 제도의 성립

2)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97-128면.

3) 1920년대 근대 매체의 독자 참여 제도를 다룬 연구로는,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학회, 2004, 185-220면; 「식

및 발전 과정을 개괄하고, 각 제도의 내용과 의의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잡지가 시행한 독자 참여 제도에 대해서는 신문에 비해 충분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물론 잡지가 시행한 독자 참여 제도를 다룬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헌호⁴⁾는 등단제도의 권력 변환을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그는 근대 초기 독자투고와 현상문예를 본격적인 등단제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모국어 훈련의 계기가 되어 한국 근대문학 탄생의 기반이 되었다며 의의를 부여하였다. 특히 1910년대 『청춘』의 현상문예가 모국어로 쓰는 개성적 글쓰기의 의미를 확산하고 작가를 배출함으로써 근대적 등단제도의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했다면, 1910년대 후반에는 동인지 『창조』가 문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내세우며 등장해 수많은 작가를 배출하며 유희한 등단제도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개벽』과 『조선문단』이 등단제도를 본격화했다고 정리하였다. 두 잡지가 소멸한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문의 신춘문예가 강력한 권위를 획득하며 작가 재생산 제도의 권력 이동이 잡지에서 신문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영진⁵⁾은 신춘문예를 등단제도의 완성으로 보고, 그 전사(前史)로서 잡지가 시행한 등단제도를 살폈다. 그는 등단제도를 추천제, 현상문예, 신춘문예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밝힌 후, 이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상문예로 시작한 초기 등단제도가 1920년

민지 시기 『동아일보』 문인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153-180면; 이희경, 「192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 형성과정과 제도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학회, 2011, 97-133면; 손동호, 「식민지 시기 『매일신보』의 신년현상문예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학회, 2019, 235-270면;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연구」, 『우리문학연구』 67, 우리문학학회, 2020, 241-273면 등이 있다.

4) 박헌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 - 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5-40면.

5) 정영진, 「등단제도의 정착 과정과 근대 문단의 형성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대 문단의 형성 과정 속에서 추천제와 신춘문예의 형태로 분화되며 본격적인 문학 권력의 재생산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1908년 『장학보』 이래로 시도된 현상모집이 1910년대 후반 『청춘』, 『유심』, 『신청년』 등 일련의 잡지가 시행한 현상문예로 발전하며, 이후 추천제와 신춘문예 등 본격적인 등단제도의 틀을 구축해 나갔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신문 매체가 주도한 신춘문예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의 기원 탐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잡지가 전개한 독자 참여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 목적 역시 신인 발굴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독자투고와 현상문예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예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독자 참여 제도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구성과를 계승하되,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근대 시기 문예지를 전체적으로 개괄하고자 한다.⁶⁾ 다만 지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1910년대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1910년대에 발행한 문예지를 전수조사하여 독자 참여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6) 연구 대상을 문예지로 한정된 것은 해당 시기에 발행된 전체 잡지는 분량의 방대함으로 인해 연구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독자 참여 제도는 문예지가 주도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예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발간된 문예지는 90여 종이다. 문예지 선별은 윤정원의 「한국 근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 1889-1945」(『서지학연구』 14, 서지학회, 1997. 335-361면)에 수록된〈표1〉 근대 정기간행물의 주제별 종수와 비율(343면)에서 ‘문학예술’로 분류한 잡지와 최덕교의 『한국잡지백년』(현암사, 2004)에서 ‘우리 근대문학 초기의 동인지’, ‘1920년대의 문예잡지(1), (2)’ 등을 참고하였다.

〈표1〉 문예지의 독자 참여 제도 시행 현황

번호	발행기간	문예지명	통권	발행인	독자 참여 제도
1	1914.10~1918.09	청춘	15호	최창선	현상문예
2	1916.01	근대사조	1호	황석우	독자투고
3	1917.04~1918.10	조선문예	2호	최영년	현상문예
4	1918.09~1919.02	태서문예신보	16호	장두철	독자투고
5	1919.01~1921.07	신청년	6호	이정섭	독자투고, 현상문예
6	1919.02~1921.05	창조	9호	주요한	독자투고
7	1919.02~1920.04	삼광	3호	홍영후	독자참여란, 독자투고
8	1919.11	녹성	1호	이일해	현상문제
9	1919.11~1920.10	서광	8호	장응진	독자투고, 현상문예

이 시기 문예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의 문예지 모두 독자 참여 제도를 시행하였다. 독자가 매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 모든 매체가 해당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문예지의 독자 참여 제도 시행 현황을 바탕으로 각 매체의 응모규정과 당선작을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시행 목적과 특징 그리고 제도의 변화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독자 참여 제도의 후속 연구에 이정표를 제공하고 중복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2. 조선어 글쓰기의 확산과 문체 정립-『청춘』, 『태서문예신보』

독자 참여 제도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청춘』은 매우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 1900년대 『대한자강회월보』, 『태극학보』 등에서 선보였던 독자투고와, 『장학보』가 시도했던 현상문예를 계승하여 현상문예 제도의 명맥을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조선문단』, 『개벽』 등의 잡지가 주도한 본격적인 문인재생산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춘』은 김동환, 김명순, 김형원, 박달성, 방인근, 방정환, 유광렬, 이익상, 주요한, 최서해 등 여러 신인을 배출함으로써 등단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문단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 장에서는 『청춘』이 시행한 독자 참여 제도가 신인 등단 외에 조선어 글쓰기를 확산하고, 시문체를 보급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밝히고자 한다.⁷⁾

『청춘』은 1915년 3월 ‘국시위반’으로 정간 처분을 받고, 1917년 5월 16일 제7호로 속간과 동시에 현상문예를 시행하였다. 『청춘』이 시행한 현상문예는 ‘특별대현상’과 ‘매호현상문예’였다. 먼저 ‘특별대현상’⁸⁾의 모집 부

7) 『청춘』이 시행한 독자 참여 제도에 대해서는 손동호의 「『청춘』의 현상문예와 근대 초기 한글운동」(『인문연구』 9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34면)을 대부분 재인용하였다. 이밖에 『청춘』의 독자 참여 제도를 다룬 연구로는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 문학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11(4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21-260면; 신지연, 「『청춘』의 독자문예란 연구」,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학회, 2004, 485-512면; 황혜진, 「잡지 『청춘』 독자투고란의 어문교육사적 연구」, 『작문연구』 4, 한국작문학회, 2007, 145-172면; 이경현, 「『청춘』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문학」, 『한국문화』 4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325-346면; 양문규, 「1910년대 잡지 매체의 언어 선택과 근대 독자의 형성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163-190면 등이 있다.

8) ‘특별대현상’의 모집공고는 『청춘』 제7호(125면), 제8호(75면), 제9호(125면)에 실렸으며, 모집공고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特別大懸賞◻ / 一, 故郷의 事情을 錄送하는 文 崔六堂 考選 / 自己故郷의 山河風土며 人物事蹟 等 諸般事情을 在遠한 知人에게 報知하는 文이니 文體와 意匠과 長短은 任意로 하되 張皇치 아니한 中에 要領을 得하며 煩瑣치 아니한 中에 情趣가 有하도록 함이 可하며 엇더케하든지 모든 事實을 料理安排하야 統一과 組織있는 文章을 成하여야 함은 毋論이니라 / 一, 自己의 近況을 報知하는 文 崔六堂 考選 / 學生이면 工夫生活과 農人이면 耕作生活과 其他 엇더한 生活을 하는 이든지 自己가 最近에 經歷한 바 感想한 바 聞見한 바 中 무엇이든지 情趣있는 筆致로 寫出하야 親知에게 報知하는 文이니 아뭇조록 眞率을 守하고 誇虛를 避함이 可함 / ●制限 一行二十三字 百行內外 純漢文만 避하고 文體任意 ●賞給 一等五圓, 二等參圓, 三等壹圓, 各若干人 / 一, 短篇小說 李春園 考選 / 學生을 主人公으로 하야 猥雜에 流치 아니하는 範圍에서 體裁, 意匠은 任意로 할 것이며 滑稽味를 帶한 것도 無妨함(以上 三種應募는 原稿始面에 반드시 讀者證을 貼付하시오) / ●制限 一行二十三字 五百行以內 叙設體記述體書翰體俱無妨 ●賞給 一等十圓, 二等五圓, 三等三圓, 各若干人 / 一, 應募期限 來七月十五日日本館着, 九月發行倍號發表

문은 논문과 단편소설이었다. 응모규정에는 각 부문별 주제, 문장 작성 시 유의점, 고선자, 원고 분량, 문체 조건, 상금액, 응모 기한, 주의사항 등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해당 현상문에 당선작은 제11호 부록에 발표하였다. ‘자기 근황을 보지하는 문’은 당선, 선외, 가작을 포함하여 19편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에 10편을 지면에 공개하였다. ‘고향의 사정을 녹송하는 문’은 12편의 당선작 중에서 5편을 게재하였다. 논문의 고선(考選)을 맡은 최남선은 두 논문의 경향을 분석한 후, 현대 청년에게 문장 연습이 부족하다며 시문(時文)에 대한 용의가 태무한 교육의 결함을 비판하였다.⁹⁾ 단편소설은 18편의 당선작 중에서 4편만 발표하였다. 단편소설의 고선을 맡은 이광수는 응모작이 20여 편이나 모인 점을 두고 조선문단 신흥이 서광이라 볼 수 있겠다며 수확이 컸다고 총평하였다. 그리고 응모 작품을 모두 순수한 시문체로 쓴 점, 엄숙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로 쓴 점, 진숙적이고 교훈적인 구투를 벗고 예술적 기미를 보인 점, 고대문학의 이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태도로 현실을 그린 점, 신사상의 맹아가 보이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쁨과 놀라움을 표했다.¹⁰⁾ 『청춘』 편집진은 현상문에 응모규정에 문체 및 문장에 관한 해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최남선과 이광수 등의 선자(選者)는 당선작을 공개하면서 선자평(選者評) 및 선후감(選後感)을 통해 문장을 중심으로 작품을 평가하였다.

‘매호현상문예’는 독자와 사상적으로 교제하고 신문단에 과란을 일으키기 위해 시행하였다.¹¹⁾ 응모규정¹²⁾에 의하면 모집 부문은 시조, 한시, 잡

9) 선자(選者), 「양문(兩文) 고선의 감(感)」, 『청춘』 제11호, 1917. 11. 16. 39-40면.

10) 춘원생, 「현상소설 고선 여언(餘言)」, 『청춘』 제12호, 1918. 3. 16. 97-102면.

11) 「매호현상문예(每號懸賞文藝)」, 『청춘』 제9호, 1917. 7. 26. 126면. “懸賞文藝欄을 두기는一邊讀者히고의 思想上 交際의 機會를 짓는 同時에 一邊으로는 巴야흐로 勃興하러하는 新文壇에 意味있는 一波瀾을 寄與코저 함”

12) 「매호현상문예」, 『청춘』 제7호, 1917. 5. 16. 124면. 每號懸賞文藝爭先應募하시오 / 一, 時調(卽景卽興) 入選壹圓書籍券 / 一, 漢詩(卽景卽興)(七絕七律만) 入選壹圓書籍券 / 一, 雜歌(長短及題任意) 入選賞金五十錢至五圓 / 一, 新體詩歌(調格隨意) 入選賞金五十錢至五圓 / 一, 普通文 一行二十三字三十行以內, 純漢文不取 入選賞金 天貳圓, 地壹圓, 人五十錢 / 一, 短篇小

가, 신체시가, 보통문, 단편소설 등으로 문예에 집중하였다. 응모규정에는 각 부문별 주제, 원고 분량, 문체 조건, 상품, 응모 기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고선은 본지 편집국원 및 전문 대가에게 촉탁한다고 하였다. 상시적인 현상문예인데다 모집 부문이 늘어 심사 인원을 증원하고, 심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제9호부터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응모 수가 적고 지면 관계상의 이유로 제10호부터 발표하였다. ‘매호현상문예’의 선외작과 가작은 명단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입선작은 최대한 지면에 발표하였다. 『청춘』 제10호(1917. 9)부터 중간호인 제15호(1918. 9)까지 현상문예 당선작을 지면에 실었다. 당선된 작품은 총 212편이며 118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이는 『청춘』이 독자 참여 제도를 상시화하여 독자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모집, 발표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독자와 사상적으로 교제하고, 신문단을 조성함으로써 문예를 부흥하고자 한 것이다.

『청춘』 필진들은 조선 문예의 부흥을 목적으로 신문학 건설에 매진하였다. 그들은 ‘현대인의 신사상과 감정을 누구나 다 아는 현대어로 쓰는 것’을 신문학으로 규정하고, 현상문예를 시행하여 신문학 확산에 앞장섰다. 그리고 신문학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신사상과 문체를 제시하고, 이를 현상문예 당선작 선정에도 반영하였다. 하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독자들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은 구습 비판이나 청년학생들의 고민과 방황 등으

說 一行二十三字百行內外 漢字 약간 석근 時文體 入選賞金 天參圓, 地貳圓, 人一圓 / 一, 以上은 每月末日까지 接受하여 그 이듬이듬달 發行號에 發表호대 時限에 未到하였을지라도 次회에 入하여 考選함 / 一, 應募는 반드시 本誌의 讀者인 後에 許하나니 故로 本紙에 印入한 「青春讀者證」을 原稿始面에 貼付할 事 / 一, 一人이 幾種幾編이든지 隨意로 應募함을 得하며 兩種以上을 投稿할 時에는 其中一種에만 讀者證을 貼付하면 可함 / 一, 原稿는 반드시 楷字로 書하며 應募者의 住所, 氏名을 題目下에 明記하며 封皮左方에 『青春懸賞文藝』 六字를 記入할 事 / 一, 賞金及書籍券은 本誌發行後一週日內로 發送할 터이니 郵便抵達日數를 料量하여 未着된 時에 即時通問하시옵 / 一, 發表는 第九號로 始하여 每號에 例續함 / 一, 考試는 本誌編輯局員과 및 專門大家에 囑托하였습 / 一, 他人의 改竄이나 剽竊임을 發見하여 一週日內로 告發하면 告發人에게 賞物을 代送함

로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검열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적으로는 내용과 형식을 당선작 선정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는 형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형식적 요건의 핵심은 문체였고, 구체적으로 시문체였다. 시문체는 우리말 어법에 따른 문장 쓰기를 지향했으며, 글의 종류에 따라 한문 문장의 개입 정도가 다른 문체였다. 『청춘』 필진들은 현상문예의 응모규정을 비롯하여 선자평과 선후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문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시문체를 강조한 것은 시문체의 사용 여부가 신문학 성립의 전제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문일치로 귀결되기 때문이었다.

‘특별현상문예’가 시문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문체 정립에 기여했다면, ‘매호현상문예’는 시문체의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청춘』은 폐간될 때까지 ‘매호현상문예’를 시행하며 당선작 게재에 힘썼다. 심지어 창작을 전제로 한 현상문예임에도 불구하고 번역물까지 허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독자들에게 시문체의 선본(善本)을 제공함으로써 시문체 습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문체 확산의 주역은 『청춘』의 독자들이었다. 문학지망생, 학생과 교사, 한글운동가들은 시문체로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함으로써 시문체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김윤경과 배재황 등 주시경의 제자들은 현상문예에 지속적으로 투고하여 중복당선됨으로써 한글문장 규범의 보급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정리하자면 『청춘』은 ‘우리글로 우리의 사상을 담아내야 한다’는 명제를 시문체를 통해 구체화했으며, 현상문예를 시행함으로써 시문체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춘』이 시행한 현상문예의 제도적 토대는 『소년』, 『붉은저고리』, 『아이들보이』 등의 잡지가 시행한 작문 교육에 있다. 신문관에서 발행한 이들 아동잡지는 조선어 글쓰기 및 문체 확립의 측면에서 『청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년』은 〈소년문단(少年文壇)〉을 비롯한 다양한 독자 투고를 시도하며 일종의 문장 교본을 제공하였다. 『붉은 저고리』는 순한

글체를 채용하고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기획란을 마련하여 독자들의 취미를 양성하고 독자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아이들 보이』는 현상문예를 시행하여 조선어 글쓰기 교육을 시도하는 한편 〈글 쓰느기〉를 통해 시문체를 선보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투고작에 대한 간단한 평가 선후감에 해당하는 편집진의 글을 실는 방식은 『청춘』으로 이어졌다.¹³⁾

이처럼 『청춘』의 독자 참여 제도는 이전 시기 아동잡지에서 시행한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어 글쓰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당선작을 선본으로 제시하고 독자들의 조선어 글쓰기를 추동함으로써 본격적인 습작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청춘』이 시행한 독자 참여 제도를 통해 조선어 문장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후 본격적인 문단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태서문예신보』(이하 신보)는 1918년 9월 26일, 발행인 윤치호, 주간 겸 편집인 장두철이 창간한 문예주간지이다. 신보는 창간호부터 독자와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여러분은 익독만 하실 뿐 아니라, 이야기나, 시나, 노력이나, 기외 여러 가지 문예에 관한 기사와 본보에 기지된 글에 덕한 비평문¹⁴⁾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제2호에서는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 문단임에도 우리 문단은 적막하다며 글쓰기를 촉구하였다. 읽고 쓰는 행위는 몽매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사회를 개량하여 마취된 사회를 부흥케 한다며 독자에게 무엇이든 읽고 써 달라고 주문하였다.¹⁵⁾ 제3호에서도 “논문이든지, 시든지, 산문이든지 무엇이든지 보너실 썩에는 될 수 있는 디로 청서호야 보너시며, 번역호신 것이 거든 原作者의 年代와 성명¹⁶⁾을 보내달라 재차 요청하였다. 제4호에서는

13) 손동호, 「신문관 발행 잡지의 독자 참여 제도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9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39-67면.

14) 「바랍너디」, 『태서문예신보』 제1호, 1918. 9. 26. 5면.

15) 「편집어록」, 『태서문예신보』 제2호, 1918. 10. 13. 6면.

16) 「바랍너디」, 『태서문예신보』 제3호, 1918. 10. 19. 5면.

독자란(讀者欄) 개설을 예고했으며¹⁷⁾, 제5호부터 〈독자의 소리〉를 게재하며 본격적으로 독자와 소통하였다.

이처럼 신보는 독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청춘』과 마찬가지로 조선어 글쓰기를 지향하였다.¹⁸⁾ 다음은 기사에 한문을 섞어서 써달라는 독자의 요구에 대한 신보 편집진의 답변이다.

우리 편집부에서도 이 언한문 이야기를 만히 합니다. 마난 우리의 문예를 근본적으로 세우려면 일부분의 인사를 위함보다 도선 일반을 목표로 할 것이외다. 언한문을 더 재미있게 보실 만한 그분네와는 서로 손목을 잇글고 언문쓰기를 연구하고, 언문 읽기를 가리키려 하는 것이 본보의 주의외다. 또한 언한문에는 언한문의 장치가 있고 언문에나 언한문에서는 으들 수 업는 언문 독특한 다른 웃더한 장치가 있는 것이외다. (중략) 우리는 이 언문쓰기와 읽기를 힘써야 도선의 예술은 도선 일반에 보급될 것이오, 이리하여야 도선의 예술은 근본적으로 수립(樹立)될 것이외다.¹⁹⁾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신보가 조선어 글쓰기를 통해 조선의 예술을 일반에 보급하고, 궁극적으로 조선의 예술을 수립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신보의 문체 선택에 찬성하는 독자도 있었지만 언한문을 요구하는 독자도 있었다. 결국 신보는 독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7호부터 일부 기사를 언한

17) 「바람니다」, 『태서문예신보』 제4호, 1918. 10. 26. 3면. “너호부터는 독자란(讀者欄)을 시작할 작명이오니 문예의 관한 의견이나, 사회에 덕한 비평이나, (담언 기인의 명예문데는 거절함) 쏘는 본보에 대한 의견이나, 본지에 게재된 것에 대한 비평이나, 기타 무엇이든지 문예의 범위 안에서 의견과 비평과, 바람을 주시면 기직하겠스오니 이 독자난을 각각 나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 독자난에 대하여 각각 책임이 있는 줄노 칭각하시기를”

18) 「바람니다」, 『태서문예신보』 제5호, 1918. 11. 2. 3면. “누구시든지 시나, 노리나, 소설이나 기타 문예에 관한 기스를 보너시라거든 곳 보너시고 미리 서신으로 문의하실 필요는 업습니다 담언 요구하는 것은 워고는 될 수 있는 디로 순언문으로 쓰시기를”(밑줄은 인용자)

19) 「독자의 소리」, 『태서문예신보』 제5호, 1918. 11. 2. 6면.

문으로 게재한다. 신보는 <독자의 소리>에 독자들이 보낸 질문과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9호에는 작품 첨삭부를 설치하여 독자 투고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다. 해당 공고는 <독자의 소리>와 달리 언한문으로 작성하였다.

文壇의 衰微와 思潮의 冷萎가 其極을 極한 今日에 此를 振興하고 此를 鼓吹함에는 文壇을 建設해야 思想을 統一을 謀하고, 文藝를 樹立해야 情神을 復興을 計함이 무엇보다도 第一緊急하다. 此의 目的을 執하고 時代의 要求에 應해야 이라는 本報는 數百年을 繼續해야 進歩發展해야 기의 絶頂에 이른 유럽(歐羅巴)의 文藝를 選又擇해야 輸入함과 同時에 我的 文藝를 創作코져 함이라. 이를 爲해야난 無限한 ㅅ을 가진 新藝術家를 助長할 必要가 크며 또한 여러 方面으로부터 請求가 頻多함으로 今般에 特히 愛讀諸氏를 爲해야 「作品添削部」를 設하고 各大家의 周到한 添削, 批評, 注意를 與하겠스오니 有意하실 이는 左記 要件에 依해야 一般 作品을 보너지오

- 一, 作品의 種別, 詩, 歌, 論文, 小說, 短篇, 脚本, 其他
- 二, 原稿는 淸書호되 頁數를 明記하고 原稿에는 住所와 姓名을 記入할 것,
- 三, 原稿還付나 回信을 要할 境遇에는 返料信(郵券)을 同送할 것,
- 四, 譯文일 境遇에는 其 翻譯한 原稿를 同送할 것,
- 五, 原稿를 發送할 時는 訂正에 訂正을 加해야 가장 完全한 듯하게 ㅅ 다른 後에야 보너지 長短은 隨意로 할 것,
- 六, 此에 關한 一切 通信은 「京城 樂園洞 二五四番地 泰西文藝新報社 編輯部」로 호되 「作品添削部」를 漏落치 말 것²⁰⁾

신보는 문단 건설과 문예 수립을 목표로 우리 문예를 창작하고자 한다

20) 「작품첨삭부개시(作品添削部開始)」, 『태서문예신보』 제9호, 1918. 11. 30. 7면. 제10호 7면 하단, 제11호 5면 중단에도 동일한 공고를 게시하였다.

며 독자투고의 시행 배경을 설명하였다. 새로운 문예가를 조장하기 위해 첩삭부를 설치하고, 대가를 초빙하여 독자의 작품을 첩삭, 비평, 주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응모규정에 따르면 모집 부문은 시, 가(歌), 논문, 소설, 단편, 각본, 기타 등이다. 원고 분량에 제한이 없었으며, 『청춘』의 ‘매호현 상문예’와 마찬가지로 번역까지 허용하였다. 강남주의 수신처를 ‘작품첩삭부’로 명시하여 <독자의 소리>와는 별도로 모집하였다. 강남주는 신보가 무명시인을 발굴했다며 1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²¹⁾ ‘작품 첩삭부’가 설치된 이후인 10호부터 작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독자란을 마련하지 않고 첩삭을 거친 작품을 발표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독자의 소리>와 ‘작품첩삭부’ 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담당 편집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병상에 누운 탓에 독자가 보낸 편지를 회답하지 못하기도 했으며,²²⁾ 사무가 복잡하여 본사에 도착한 원고를 회답하지 못하기도 하였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는 독자 참여 제도를 시행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조선어 글쓰기를 추동함으로써 조선 예술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3. 한문학의 부흥과 고전 수집-『조선문예』

문예지가 대체로 신문학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문학의 부흥을 목적으로 창간한 잡지가 있었다. 1917년 조선문예사가 발행한 『조선문예』가 대

21) 강남주,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정 연구-태서문예신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78-84면. 그가 무명시인으로 지목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2호 H.M.生, 4호 백대진, 5, 6호 해몽생, 7호 이일, 10호 백대진, 이일, 최영택, 구성서, 12호 최영택, 이성태, 이병두, 13호 영남 금성 반광생(半狂生), 무경생(武卿生), 14호 삼전생(三田生), 16호 김진성, 최영택, 계원(溪園), 개성 음고생(吟孤生), 태학생(怠學生)

22) 「바람씨다」, 『태서문예신보』 제10호, 1918. 12. 7. 3면.

23) 「바람씨다」, 『태서문예신보』 제12호, 1918. 12. 25. 3면.

표적인 사례이다. 조선문예사는 민달식, 최영년, 이희두, 이종석, 서상훈, 구찬서, 정병조, 서상춘, 오극선, 이범성을 발기인으로 하여 조선의 문예를 장려하기 위해 창립하였다. 이 단체의 임원은 사장 민병석, 이사 최영년, 시단장 정만조, 고문으로는 이완용을 비롯하여 이지용, 김윤식, 조중응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시단(詩壇)을 설(設)하여 음영(吟詠)하고, 문예 서적을 간행하고, 현상모집을 하여 일반 인사의 예술을 장려하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내세웠다.²⁴⁾ 이 단체는 총독부가 한학자를 비롯한 유림을 동조 세력으로 규합할 것을 목표로, 유교 계열 친일단체였던 대동학회의 인물을 다수 포진시켰기 때문에 친일적 성향을 보였다. 조선문예사는 시대의 조류에 역행했다는 점과 반민족적 성격 때문에 결국 유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 기관지 격인 『조선문예』 또한 제2호로 단명한다.²⁵⁾

조선문예사의 사업 목표 중의 하나는 조선 인사의 각종 문예작품을 모 집하여 값을 평하고 상품을 주며 그 원고를 『조선문예』에 재록하여 문예를 발양하는 것이었다. 전국적인 규모로 한문학을 현상모집하여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림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조선문예』 창간호부터 〈시문(詩文)현상〉 당선작을 지면에 발표할 수 있었다. 현상문예 모집 부문은 율시(律詩), 공령시(功令詩), 문(文)이었다. 율시는 정만조가 고시(考試)하였으며, 시제는 ‘춘초(春草)’였다. 1등 3인, 2등 10인, 3등 20인, 선외가작으로 50여 인을 선발하였다. 공령시는 과거를 볼 때 짓는 시로, 과거제가 폐지된 이후 효용가치가 없었음에도 모집 부문에 포함하였다. 이는 해당 현상문예가 유림의 불만해소나 사기 진작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령시의 고시는 신면휴가 맡았다. 1등 1인, 2등 2인 그리고 선외 6인을 선발하였다. 문(文)은 여규형이 고시하였으며, 주제는 문예발흥론이었다. 1등 1인, 2등 3인, 3등 4인,

24) 「조선문예사의 취지」, 「조선문예사의 규약」 『조선문예』 제1호, 1917. 4. 20. 155-156면.

25) 주승택, 「『조선문예』 고」, 『진단학보』 62, 진단학회, 1986, 165면.

선의 8명을 선발하였다. 당선자 발표 후 127-154면에 걸쳐 당선작을 모두 게재하여 일반 청년 문예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당선작은 1910년대 한문학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²⁶⁾

『조선문예』는 현상문예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위의 〈시문현상〉외에 『조선문예』 1,2호에 〈현상모집〉 공고를 연속 게재한 것으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현상모집〉은 〈시문현상〉보다 모집 부문을 더욱 확대하였다. 〈시문현상〉의 모집 부문이었던 율시, 공령시, 문(文)에 서(書), 화(畫), 가요(창가 혹은 시조), 금언(金言), 시미(詩謎), 자미(字謎) 등을 추가하여 현상모집하였다. 아래는 해당 현상문예의 응모규정²⁷⁾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2〉 『조선문예』 현상모집 공고

구분	내용
모집 부문	시(절구, 오언율시, 공령시), 작문, 서, 화, 가요, 금언, 시미(詩謎), 자미(字謎)
부문별 주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p>시 : 추월(秋月) 공령시 : 讀盡天下好書 識盡天下好人 觀盡天下好山水(押好) 작문 : 一日食論 서 : 言忠信行篤敬 화 : 일요일의 학생, 매난국죽의 하나 가요(창가 혹은 시조) : 문명의 시대 금언(金言) : 1절 혹은 2절 자미(字謎) : 木了又一口勿以杏字看 口了又一木勿以呆字看 시미(詩謎) : 28자를 7언 절구로 구성</p> </div> <div style="flex: 1; text-align: center;">  </div> </div>

26) 주승택은 율시의 경우, 이능화, 유원표, 권상노, 김근영, 김영철, 조학원, 지창한 등 제법 이름이 알려진 문인들이 3등 당선권에 들어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수준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승택, 앞의 글, 179면.

27) 「현상모집」, 『조선문예』 제1호, 1917. 4. 20. 157-158면.

문체	시·순한문, 작문·20자 20행 이내 순한문 혹 한언문 교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9월 25일 이내에 통의동 66번지 본사로 보낼 것 1. 작품 모집하여 각종 甲乙을 評定하여 상품 진정하고, 원고는 제2호에 간출함 1. 서화는 입격만 간출하고 선외는 但히 芳名만 載함 1. 시문(詩文)의 題外 연구가 有하면 물론 발거(拔去)함 1. 상품 1등 1인(2원 가치 서적), 2등 2인(명가필첩 1매), 3등 5인(회협서 1조) 1. 시미와 자미는 20인을 추천하여 3등상을 施함 1. 각종의 편수 다과를 從하여 입격(入格)의 증감을 得함 1. 응모자는 「조선문예」 독자에 한하여 송고시에 필히 본지 대금을 반송함을 要

현상모집은 전통적인 운문 양식을 본위로 하되 다양한 한문학 양식을 포괄하였다. 그리고 ‘매난국죽’ 등 전통적인 주제와 ‘일요일의 학생’, ‘문명의 시대’ 등 근대적인 주제가 공존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 한문 독자층을 중심으로 하되 청년 독자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⁸⁾ 해당 현상모집의 결과는 『조선문예』 제2호에 발표된다. 당선 결과 시 1등 3인, 2등 9인, 3등 64인 4등 17인, 문 1등 1인, 2등 2인, 3등 3인, 4등 6인, 서 1등 1인, 2등 2인, 화 1등 1인, 잠언 1등 1인, 2등 2인, 자미 1등 1인, 시미 3인, 창가 1등 1인의 당선자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84-114면에 걸쳐 당선작을 게재하였다. 주승택은 시가 부문에 당선작이 몰린 결과를 두고, 『조선문예』가 간행된 1917년 무렵에는 이미 문(文)은 그 기능을 사실상 거의 상실했다고 진단하였다. 실용문의 성격이 강한 기사문, 의론문, 전기문 등은 국한문체로 대치되고, 문학성이 강한 사부(辭賦)만이 한문학의 영역 속에 남게 되는데 그나마도 거의 창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²⁹⁾

28) 『조선문예』가 강의부, 참고부를 두고 초학자를 위한 한문학 입문 강좌 및 각종 문예에 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것도 한문학의 저변 확대를 의도한 것이다.

29) 주승택, 앞의 글 179-180면.

『조선문예』는 한문학 부흥을 목적으로 독자의 창작물을 현상모집하는 동시에 고전 명작도 모집하였다. 응모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 선조들의 명작, 사우(師友) 및 지구(舊舊)의 명작, 일사(逸土)의 유전하는 명작 등 100년 내외의 고인(古人) 명작을 모집 대상으로 하였다. 작품은 5,7율시, 5,7절구로 한정했으며, 저작자의 성명, 시호, 약력과 송고자의 경우 저작자와의 관계 여하와 거주씨명 등을 상세히 기록해 달라고 요구하였다.³⁰⁾ 이러한 사례는 독자 참여 제도가 조선의 한문학 수집에도 활용되었음을 보여 준다.³¹⁾

독자 참여 제도가 고전 수집에 활용된 사례는 『소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년통신〉은 당시 구전되던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였다.³²⁾ 『소년』을 발행한 신문관의 창립 이념은 출판보국(出版報國)이다. 그리고 고서의 수집 및 복간, 사전 편찬에 주력한 조선광문회가 『소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소년통신〉은 당시 구전되던 조선적인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볼

- 30) 「특별광고 근고명가(近高名家)의 시고(詩稿) 모집」, 『조선문예』 제1호, 1917. 4. 20. 161면.
- 31) 『조선문예』의 인적구성이나 총독부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조선 한문학 수집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노경희의 「1910년대 조선총독부 참서관실의 한국문헌 수집과 정리 연구」(『대동한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3), 대동한문학회, 2016, 357면)를 참조할 수 있다. “일제의 한국 고문헌 수집과 정리 작업은 비단 총독부 주도뿐만 아니라 관에서 일어나는 사업과 별개로, 조선고서간행회, 조선연구회, 서물동호회 등 당시 경성에 거주하던 민간의 일본식인들은 다양한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해 조선 고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회보나 목록, 영인본, 번역본 등의 간행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이때 이들의 활동에는 직간접적으로 총독부의 지원이 적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총독부의 도서정리와 수집 작업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즉 이 시기 일제의 조선고문헌 정리 사업은 관과 민간의 공조 체계 하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구적인 조선 식민지화의 성공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 32) 최남선, 「조선광문회에 대하여 우리 소년 독자 열위의 열렬한 찬성을 구함」, 『소년』 제4년 제2권, 1911. 5. 15. 11면. “生은 그동안 이 차림의 위에 서서 무엇이던지 分數에 適當한 일을 하려 하여 그 첫째 거름으로 **朝鮮 古來의 文書記錄을 收聚하고 保存하난 運動을 시작하였사오니** 이는 대개 「이제」와 「自己」들이 써붓들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하였슴이오”(밑줄은 인용자)

수 있다.³³⁾ 〈소년통신〉의 응모규정³⁴⁾에 의하면 모집 부문은 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명승, 고적, 풍습, 방언, 속언(俗諺), 인물, 물산, 기이한 자연현상, 학교 교훈, 동요, 전설 등이었다. 이와 달리 『조선문예』는 율시와 절구 등 한시만 집중적으로 모집하였다. 한문학은 근대 시기를 거치며 급격히 쇠퇴한다. 하지만 한시는 『매일신보』의 〈한시모집〉에 이어 민간지가 주도한 신춘문예의 모집 부문에 포함되며 그 명맥을 이어나간다.

4. 근대지식의 소개와 예술의 보급-『근대사조』, 『서광』, 『삼광』, 『녹성』

〈표3〉 독자 참여 제도의 응모규정

문예지	모집 부문	규정
근대사조	철학, 문예, 종교, 윤리, 기타 과학비평, 생활비평에 관한 글	방법 : 서술, 비평, 번역 분량 : 22자 22행 사자(寫字) : 해서(楷書) 기한 : 매 격월 20일까지
서광	언론, 문예, 학술, 종교, 오락, 기타	분량 : 무제한(용지도 무특정) 사자(寫字) : 해서(楷書), 한글은 정음정사 기한 : 무정기 편집권한 : 첨삭, 정제
삼광	음악, 미술, 시가, 소설, 논문, 산문, 각본	분량 : 12행 25자 원고지 8매 이내 사자(寫字) : 해자(楷字)로 정서(定書)하되

33)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권두연,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49-286면 참고.

34) 「소년통신(少年通信)」, 『소년』 제1년 제1권, 1908. 11. 1. 81-82면. **이 통신은 讀者 여러분께서 各其 사시난 곳에 잇난 名勝 古蹟 特殊한 風習 方言 俗諺 人物 産物 奇異한 自然現象 學校校訓 童話 傳說에 關한 것**을 한 가디나 두 가디나 되난 대로 덕어보내시거나 쯔 할 수 잇스면 略畫까지 添付하야 보내시면 順次로 내이기 爲하야 設始한 것인데 이는 讀者 여러분이 힘써 보내두시여야 할 것이오.(밑줄은 인용자)

		언문을 특히 주의하여 정음정사(正音正寫) 기한 : 무정기(無定期) 편집권한 : 침삭 및 정재(停載)
특성	① 사진 내용 추측하기 ② 소설 속 범인 맞히기	① 소설체, 1행 24자 60행 이내, 11월 15일 내 ② 연재소설 속 진범 찾기, 상금 100원

초기 문예지는 매체의 창간 의도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자 참여 제도를 활용하였다.³⁵⁾ 그리고 매체의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문예 외에도 다양한 부문을 모집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근대사조』는 조선 민족 및 단체에 구미 선진국의 철학, 문예, 종교, 윤리, 기타 학술상 지식을 소개하고 조선사회 개량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창간하였다.³⁶⁾ 응모규정³⁷⁾에 의하면 창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독자투고를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예를 비롯한 철학, 종교, 과학 등의 각 학술 분야에, 창작뿐만 아니라 번역까지 포함하여 해외 선진 지식의 소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문예지가 1호로 중단됨에 따라 독자들의 작품은 확인할 수 없다.

『서광』은 청년 학생의 전진을 계시하고 신지식과 신사상을 고발(鼓發)하기 위해 창간하였다.³⁸⁾ 독자투고 응모규정³⁹⁾에 따르면 모집 부문은 언

35) 이는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매일신보』는 1916년 12월 '신년기고모집'을 시행하며 논문과 시가를 모집하였다. 논문의 주제가 '일선동화론'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총독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의도로 현상모집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36) 「창간사」, 『근대사조』, 1916. 1. 26. 1면.

37) 「투고환영」, 『근대사조』, 1916. 1. 26. 19면. 一, 資料—哲學, 文藝, 宗教, 倫理, 其他 科學批評, 生活批評에 關한 文, / 一, 方法—敘述, 批評, 翻譯, / 一, 瀉稿用紙—橫, 二十二行, 縱, 二十二字, / 一, 瀉字—楷書, / 一, 受稿期間—每隔月二十日限

38) 「발행의 사(辭)」, 『서광』 제1호, 1919. 11. 30. 1-2면.

39) 「투고환영」, 『서광』 제1호, 1919. 11. 30. 169면. 一, 投稿範圍 言論, 文藝, 學術, 宗教, 娛樂, 其他 / 一, 字數制限 無制限(用紙 亦 無特定) / 一, 寫字注意 楷書로 正書호되 鮮字은 特히 正音正寫호심을 要함 / 一, 投稿期間 無定期 / 一, 投稿場所 朝鮮 京城府 松峴洞 四十番地 文興社 雜誌部 / 一, 投稿者의 住所氏名 誌上에 掲載호 氏名 或 雅號 等은 題號下에, 住所氏名은 原稿末尾에 明記호심을 要함 / 一, 投稿家의 特待 投稿記載된 時에는 該誌冊을 無代로 進모

론, 문예, 학술, 종교, 오락 등으로 『근대사조』와 마찬가지로 문학과 사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투고 용지 및 분량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응모 기한 역시 무정기였다. 독자들의 투고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면 관계 및 다른 사정으로 독자들의 응모작은 제2호에 실리지 않았다.⁴⁰⁾ 『서광』은 독자투고와 병행하여 현상문예도 시행하였다. 응모규정⁴¹⁾에 의하면 모집 부문은 보통문, 단편소설, 신체시가, 한시였다. 이밖에 원고 분량, 문체 조건, 상금, 응모 기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단편소설의 문체를 시문체로 지정한 것이나 응모자격을 해당 문예지 독자로 한정하여 응모증 첨부를 요구한 점, 그리고 타인의 개찬(改竄)이나 표절에 대해 주의를 준 점 등은 앞선 『청춘』의 전례를 따랐다.

선행 연구에서는 『서광』이 현상문예를 공고하였지만 당선자를 선발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고 설명하였다.⁴²⁾ 하지만 『서광』 제6호 125-132면에 걸쳐 해당 현상문예의 당선작 일부가 게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⁴³⁾ 현상문예 당선작은 김덕수의 「양춘소감」, 지(芝)의 「간열분우습」,

흥 / 一, 編輯權限 添削及停載는 編輯部의 任意로, 投稿本文은 一切 還付치 안이흥 / 大正八年十月日 / 文興社 雜誌部 白

40) 「나머지말, 『서광』 제2호, 1920. 1. 18. 126면. “▽諸位로 玉稿를 만히 던져주신 것을 感謝하오며 아올너 한마디 엿줄 것은 紙數의 關係와 그 外 다른 事情으로 後日을 밀어 ——히 記載치 못함은 遺憾千萬이외다”

41) 「매호 현상문예 모집, 『서광』 제4호, 1920. 3. 31. 140면. “도라보라! 우리 故園 왜저리 荒涼하냐!? 뉘뇨? 저기에 萬紫千紅으로 裝飾할 者가. 味知케라? 月桂冠이 어느 頭上에 떠리질는지?? 躑躅할 것 업시 어서 던지라. 曙光을 向하여 그대의 감춘 精金美玉의 글빨을…… / 普通文 一行二十二字五十行 內外(鮮漢文体) / 短篇小說 一行二十二字一百二十行 內外(漢字 더러 석긴 時文体) / 新體詩歌(長短 格調 隨意) 入選賞金 五十錢으로 三圓까지 / 漢詩(即景即事) 入選賞金 五十錢으로 一圓까지 / 一, 應募文藝는 每月 二十五日 內로 接受하여 그 다음々々 달 號에 發表함 / 一, 應募는 本誌 讀者에 限하니 반다시 本誌의 『應募證』을 原稿 始面에 添附할 事 / 一, 一人에 對하여 一證으로 幾種이든지 應募를 得함 / 一, 原稿는 楷字로 精書하고 住所氏名을 明記하며 封皮에 『曙光懸賞文藝』 六字를 特記할 事 / 一, 賞金은 入選文藝發表號 發行 後 一週日 內로 發送함 / 一, 他人의 改竄이나 剽竊 등은 良心上 問題라 投稿者의 各自 判斷에 任置함”

42) 정영진, 앞의 논문, 84면.

고파생(高波生)의 「방탕아에게」, 정렬모의 「통군정」, 신흥철의 「웅진 고향에서」 등 시 5편이 선자의 평과 함께 실렸다.

『근대사조』와 『서광』은 공통적으로 근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창간하였다. 그리고 독자 참여 제도의 모집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예를 포함한 다양한 학술 방면을 포괄하였다. 이처럼 근대 초기에는 ‘문학과 ‘사상’이 ‘문화’라는 범주에 묶여 분화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응모규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백조』를 위시한 동인지 시대에 이르면 ‘문학과 ‘사상’은 분화, 전문화된다.⁴⁴⁾

『삼광』과 『녹성』은 음악과 영화 등 예술을 위주로 내용을 채웠다. 먼저 재동경 조선유학생 락우회(樂友會)에서 발행한 『삼광』은 음악, 미술, 문학의 세 예술 분야를 주체로 한 순예술잡지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악에 좀더 집중하였다.⁴⁵⁾ 독자참여란의 일종인 〈질의응답란〉은 음악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였다.⁴⁶⁾ 『삼광』은 독자투고도 시행

43) 「현상문」, 『서광』 제6호, 1920. 7. 5. 125면. “荒涼한 우리의 廢園을 도라볼 제 욱어진 文藝 슝 폴에 감추인 보배를 發掘코저 헤트러진 글조각을 주어담고저 더운 땀을 쐬리는 어리고 弱한 園丁의 한 호메자루나 될가하야 本誌 第二號에 懸賞文藝를 募集하였드니 平時 뜻한 바에 쐬러짐 업시 만히 應募되었사오나 이내 多忙으로 다시 이어키 募集도 못하고 쐬 이미 募集된 것이라도 紙面의 關係로 **이제야 비로소 登載케 됨**은 甚히 未安한 일이외다 當選 外에 佳作도 만히 잇스나 그 亦 紙面이 넉치지 못하여서 다음 期會로 밞니다”(밑줄은 인용자)

44) 정우택, 『『문우』에서 『백조』까지-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35-65면.

45) 「창간의 사」, 『삼광』 제1호, 1919. 2. 10. 1면. “音樂이 우리 人生에게 必要하다 함은 多言할 바가 아니시오만은 더욱이 우리나라사람=思想의 變遷期에 잇는 이=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크고 重要한 것이외다.” 「편집여언」, 『삼광』 제1호, 1919. 2. 10. 39면. “本誌는 音樂, 美術, 文學의 三種 藝術을 主體로 한 純藝術雜誌입니다, 就中, 音樂 思想의 普及과, 社會音樂의 發達에 對하여 特히 注意하라 합니다.”

46) 「편집여언」, 『삼광』 제2호, 1919. 12. 28. 57면. “본지 질의응답란은 본지 상식 수양의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문학이 었더니 무엇이 었더니 하고 세인은 떠들지오만은 아직도 음악에 대하여는 아모 말이 업습니다. 물론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지는 독자제위의 음악상에 관한 지식을 수양케 하기 위하여 만치 못한 지면을 할아하 제위의 압해 제공한 것입니다. 아모 염려마시고 의문이 계시거던 곳 물어보십시오. 본지는 성심환영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 역시 음악을 빼놓지 않았다. 응모규정⁴⁷⁾에 따르면 투고범위는 음악을 비롯한 미술, 시가, 소설, 논문, 산문, 각본이었으며, 시사정답은 받지 않았다. 예술을 본위로 한 순예술잡지임을 천명한 것이다. 원고분량은 2400자 정도로, 400자 내외였던 『조선문예』나 『근대사조』에 비해 분량이 크게 늘었다.

『녹성』의 발간 의도는 예술 방면의 재료를 구해 우리 정신계를 개혁하는 것이었으나 창간호는 영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⁴⁸⁾ 『녹성』은 〈당당일백원현상 2대문제〉⁴⁹⁾라는 현상문제를 시도하였다. 〈매월 모집문제〉는 사진을 제시한 후, 사진의 광경을 소재로 삼아 소설체로 어떤 내용인지 써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사진 내용의 표준은 없고, 어떻게든지 생각나는 대로 재미있게 꾸민 것을 선발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문제의 상금은 1등 3원, 2등 2원, 3등 1원이었다. 그리고 〈범인탐정경쟁〉은 『녹성』에 연재하는 탐정소설 「의문의 사(死)」를 읽고, 진범이 밝혀지기 전에 진범을 찾아내면 상금 100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단일 상금액으로는 최고액이었다. 현상문제 공고 후 바로 해당 소설을 배치하였으며, 편집후기를 통해서도 응모를 독려했다. 연재소설의 홍보와 독자의 추리력을 함양하려는 의도로 해당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문예지가 1호로 중단된 탓에 현상문제의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47) 「투고주의」, 『삼광』 제1호, 1919. 2. 10. 40면. 一, 投稿範圍. 音樂, 美術, 詩歌, 小說, 論文, 散文, 脚本 等(但 時事政談은 不受) / 一, 用紙樣式. 橫十二行, 縱二十五字 原稿紙에 限함. / 一, 字數制限. 原稿紙로 八枚 以內. / 一, 寫字注意. 楷字로 定書하되 諺文을 特別 注意하야 正音正寫하시오. / 一, 投稿期間. 無定期. / 一, 編輯權限. 添削及停載, 投書는 一切 還附치 아니함. / 一, 投稿處所. 編輯人 住所로

48) 「편집을 맞치고서」, 『녹성』, 1919. 11. 5. 89면.

49) 「당당일백원현상이대문제」, 『녹성』, 1919. 11. 5. 80-81면.

5. 신문학의 개혁과 작가 발굴-『신청년』, 『창조』

앞장에서 살펴본 문예지가 학술과 예술 방면에 관심을 두고 근대지식을 소개하거나 예술을 보급하는 데에 힘썼다면, 『신청년』과 『창조』는 본격적인 문예에 관심을 두었다. 먼저 『신청년』은 신홍되는 우리 문단에 일대 광명을 던지기 위해 창간하였다.⁵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간호부터 폐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독자 참여 제도를 공고하였다. 응모규정은 호를 거듭할수록 창간 당시⁵¹⁾에 비해 구체화되며 정돈되었다.⁵²⁾ 모집 부문이 문예에 관한 모든 것에서 문예논문, 소설, 시, 산문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제도 취지, 원고지 규정, 원고 마감 기한 등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독자문예모집〉은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에게도 투고 기회를 주었다. 『신청년』은 독자투고 외에 현상문예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⁵³⁾ 하지만 『신청년』 제5호를 확인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현상문예는 실제 독자들의 작품이 모집되어 발표까지 예정되었다. 하지만 당국의 검열과 잡지의 편집 일정으로 인해 연기되었고, 이

50) 「독자제위계, 『신청년』 제1호, 1919. 1. 20. 40면.

51) 「투서환영, 『신청년』 제1호, 1919. 1. 20. 14면. “文藝에 關한 것은 무엇이든지 맞습니다 그러나 小說 以外는 모다 一行 二十字式 四十行 以內라야 합니다 投書는 一切 京城 寬勳洞 一番地 李重珏 方으로 보너 紙上에 載不載난 編輯部의 任意로 함 編輯部 白.” 제2호에서는 주소지가 이중각 방에서 경성 죽점정 1정목 녹성사 내 방회영 방으로 변경된다.

52) 「독자문예모집, 『신청년』 제4호, 1921. 1. 1. 12면. “오래동안 여러 讀者諸氏에 愛顧하심을 感謝하옵는 바 特別히 讀者諸氏들 【를】 爲하야 新進하려는 作家諸氏를 爲하야 每號마다 特別讀者文藝欄을 만들고 여러분의 아람다운 作品과 늦김 만흔 하수연을 募集하오니 뜻잇는 諸氏 마음 잇는 여러분은 썩사른 바 잇거든 左記 範圍 內에서 機會를 일치 마시고 奮闘 投稿 하시오! 一, 文藝論文, 小說, 詩, 散文, 特別히 小說은 無制限이나 그러나 너무 長篇이 되는 것은 雜雜紙【雜紙】 貢【貢】 數로 不戴【載】 함도 有함. 一, 投稿期日 每月 十五日以內. 一, 原稿紙는 四十字 二十行 되는 것들 【을】 要함. 一, 紙上에 戴不戴【載不載】 는 編輯局 任意로 함.”

53) 「남은말, 『신청년』 제6호, 1921. 7. 15. 63면. “스스로 말삼드릴 것은 前番 懸賞文藝募集의 發表는 이달이라 하엿사오니 當局에 檢閱上 關係와 짜라서 編輯上 關係로 이알에 發表치 못하엿삽고 不得已 來日號로 밀게 된 것은 삼가 多謝하나이다”

후 잡지가 폐간되면서 독자들의 작품은 확인할 수 없다.

『창조』는 문단의 건설과 예술의 개척을 목적으로 창간한 순문예지이다. 전영택은 『창조』 창간 경위에 대해 문예를 팔시하는 풍조에 대한 분개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조선의 문예운동이 너무 빈약한 탓에 우리 손으로 새로운 문학을 개척하기 위해 문예지를 창간했다고 회고하였다.⁵⁴⁾ 그는 회고에서 자신이 시를 투고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동인지 창간의 직접적인 이유는 문학작품의 발표지면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창조』는 동인이 주축이 되어 출판물을 간행하는 동인지 방식을 취하였다. 동인지는 자족적인 폐쇄성을 지향하였다. 문학을 사회로부터 상대화한다는 점에서 자족적이며, 동인들의 작품만으로 책을 출판했다는 점에서 자족적이며 폐쇄적이다. 또한 동인지가 권위의 근거를 동인 내부에서만 찾았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⁵⁶⁾ 하지만 1920년대에 등장하는 다른 동인지들과 달리 『창조』는 독자의 매체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독자의 투고글을 동인들이 보고 그 감상을 첨부하여 돌려주겠다는 것이나, 그 중 특출한 작품은 동인들의 추천으로 지면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그 증거다.⁵⁷⁾

54) 전영택, 「창조시대 회고」, 『문예』, 1949. 12. 표언복 편, 『전영택전집』 제3권, 목원대출판부, 1994, 489면. “당시 동경에 있는 우리 유학생의 단체인 학우회의 기관지로 『학우』라는 잡지가 있었으나 정치나 사상 혹은 과학에 관한 글은 우대하지만 시나 소설 같은 문예작품은 잡지 맨 끝에 6호 활자로 몰아넣거나 웬만하면 휴지통에 들어가는 팔시를 받는 것을 분개하는 것이 그들이 순문예지를 하자는 생각이 부쩍 일어난 것이 첫째의 동기였다. 당시는 우리 학생계 사상이 팽창하였던 때요, 또 학우지를 편집하던 이가 현상윤 씨 같은 이도 그 중 한 사람이었지만은 문예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시 몇 편을 보냈다가 박대를 받은 한 사람이라 거기에 동감인데다가, 본국의 문예운동이 너무 빈약한 것을 개탄하면서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들의 열에 움직여서 마침내 대답을 하였다.”

55) 김동인 역시 『매일신보』와 『학지광』에 작품을 투고했다가 몰서 당한 일화를 언급하며 문예지 『창조』 창간의 배경을 회상한 바 있다. 김동인, 「문단 15년 이면사」, 『조선일보』 1934. 4.

3. 조건 2면.

56) 박헌호, 앞의 논문, 15면.

독자의 글을 읽고 감상을 적어 보내주는 방식은 이미 『태서문예신보』에서 시도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보는 ‘작품침삭부’를 설치하여 독자의 작품을 침삭, 비평하여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렇듯 동일한 독자소통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가 『태서문예신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창조』 제2호에서는 태서문예신보사에서 많은 호의를 표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원조를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⁵⁸⁾ 구체적인 원조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두 매체가 직접 교류한 바 있으며, 독자 참여 제도로 한정할 때 『창조』가 『태서문예신보』의 방식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창조』는 창간 초기까지만 해도 독자란(讀者欄)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응모가 이어지자⁵⁹⁾ 독자의 작품 중에서 동인이 가작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지면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⁶⁰⁾ 그리고 제4호에는 독자란을 설치하여 에덴생(오천석)의 「운명을 넘고서」를 발표하였다. 제5호는 『창조』 1주년 기념호로 특별히 동인 외에 독자들의 글을 많이 게재하였다. 오천원(吳天園)의 「꿈길」, 김소월의 「浪人の 봄」, 송당생(松堂生)의 「살기 위하야」, 오산인(五山人)의 「K선생을 생각함」 등이 기

57) 「남은말」, 『창조』 제1호, 1919. 2. 1. 81면. “讀者諸君의 投稿는 아직까지는 紙面이 넉넉치 못하여 낫나치 바들 수 업스나, 만일 返送郵稅를 同封하여 보내시면 우리 同人이 보아드리고 그 感想을 添附하여 도로 보내드리겟사오며 或 其中 特出한 作品은 同人의 推薦으로 紙上에 올날가 하나이다.(編輯人)”

58) 「남은말」, 『창조』 제2호, 1919. 3. 20. 59면. “여러분께서 우리를 同情하시는 뜻으로 글을 보내신 것을 바다볼 적마다 우리는 큰 援兵을 어든 것가치 깃분 마음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한 中에도 特別히 泰西文藝新報社에서 만흔 好意를 表해 주실 썬더러 實地상으로 여러 가지 援助를 주신 것은 무어라고 고맙다 하여야 할지 모르겟습니다.”(밑줄은 인용자)

59) 『창조』 제2호(1919. 3. 20. 59면) 「남은말」에는 “여러분께서 우리를 同情하시는 뜻으로 글을 보내신 것을 바다볼 적마다 우리는 큰 援兵을 어든 것가치 깃분 마음을 이기지 못하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60) 「남은말」, 『창조』 제3호, 1919. 12. 10. 78면. “▲讀者여러분의 作品中에 우리 同人이 보아서 佳作이라고 認定할 때에는 紙面이 許하는 範圍 안에서 만이 記載코져 하오니 原稿을 써서 보내주시기되다.”

념호를 통해 발표된 작품이다.⁶¹⁾ 백야(白野)의 소설 「일년후」와 춘성(春城)의 논설 「문예에서 무엇을 구하는가」는 지면 관계상 제5호에 실지 못하고 제6호에 실었다. 그리고 제6호에서는 공식적으로 독자에게 투고를 요청하기에 이른다.⁶²⁾ 제9호에 정영태의 「創造八號를 넘음」을 싣고, 독자에게 독후감을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⁶³⁾ 독자투고는 잡지가 폐간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조』는 작가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창조』 초기 동인은 김동인, 김환, 이광수, 전영택, 주요한, 최승만이다. 제3호부터 이일과 박석윤이, 제7호부터 김명순과 오천석이 동인으로 합류한다. 제8호부터 김명순이 동인에서 제외되며, 김관호, 김찬영, 김억은 동인으로 합류한다. 그리고 제9호에는 임장화가 동인으로 합류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천석은 『창조』 제4호와 제5호까지만 해도 독자 신분으로 독자란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제6호에서는 기고가로 소개되며,⁶⁴⁾ 『창조』 제7호부터 동인 자격으로 활동한다.⁶⁵⁾ 여기에 『창조』 제6호에 소설 「눈 오는

61) 「남은말」, 『창조』 제5호, 1920. 3. 31. 99면. “이번 號는 記念號인 고로 特別히 紀念하기 爲하여 우리 同人 以外에 여러분의 글도 만이 올니었나이다만은 頁數의 制裁로 보내주신 原稿를 一々히 다 記載하지 못함은 다시 말할 수 업는 遺憾이올시다.” 100면의 「마끔나름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이번은 一週年 紀念特別號로 同人 以外의 愛讀者의 글을 만히 내이기로 하고, 처음에는 이번 內容의 것 以外에도 創作, 論說 等を 여러 개 너었섯습니다. 그랫든 거슬 印刷上 不得已한 事情으로 其中 몇개를 빼엿습니다.”라고 밝혔다.

62) 「남은말」, 『창조』 제6호, 1920. 5. 25. 75면. “여테까지늘 同人의 글에 限하다십히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좀 範圍를 넓히겿습니다. 말니 우리 조선 가운테, 우리 마음줄의 울넛에 共鳴하는 이들, 우리의 부르지짐에 應하는 男女친구들은 사양치 말고 대구 投稿해 주십쇼. 紙數의 制限으로 다는 못내이나 할 수 잇는 대로 내이겿습니다.”(밑줄은 인용자)

63) 『창조』 제9호, 1921. 5. 30. 95면. “讀者 諸氏의게 讀後感을 작고 보내여 주옵소서. 用紙는 아모것이라도 좃습니다. 보내시려면 京城府 鐘路八十七番地 創造臨時發行所로 보내여 주시옵(編輯部)”

64) 「남은말」, 『창조』 제6호, 1920. 5. 25. 75면. “우리는 벌서 同人 以外에 天園, 金素月, 松堂生 여러 친구와, 본국 계신 우리 新詩壇의 明星이신 象牙塔, 岸曙 兩君과 京都 계시든 碧波 方仁 根君이 새로 우리 創造의 寄稿家로 되신 거슬 저는 몹시 김버합니다.”

65) 「나름말」, 『창조』 제7호, 1920. 7. 28. 69면. “이번에 에텐(天園) 吳天錫君과 望洋草 金明淳嬢

밥』을 투고하여 문단에 나왔다고 알려진 방인근의 사례까지 더한다면⁶⁶⁾ 『창조』는 두 명의 작가를 배출한 셈이 된다. 『창조』 동인은 이후 동인지 『영대』 창간에 관여한다. 『영대』는 『창조』와 마찬가지로 독자의 글 중에서 양호한 것을 동인의 추천을 받아서 지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창조』의 구성원과 독자 참여 제도가 『영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나가며

1910년대에 발행한 문예지를 전수조사하여 독자 참여 제도의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예지가 독자 참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응모규정과 당선작을 통해 해당 제도의 시행 목적과 특징 그리고 제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독자 참여 제도의 시행 목적은 신인 발굴 외에도 매우 다양하였다. 독자 참여 제도는 독자와 소통하는 창구이자 효과적인 독자 관리 수단이었다. 작품 응모시 독자증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해당 제도가 독자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청춘』과 『태서문예신보』는 조선어 글쓰기의 확산과 시문체 정립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조선문예』는 한문학의 부흥과 고전 수집, 『근대사조』, 『서광』, 『삼광』, 『녹성』은 근대지식 소개와 예술 보급에 그 목적이 있었다. 끝으로 『신청년』과 『창조』는 신문학을 개척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실제

을 우리 同人으로 紹介하는 光榮을 가지게 된 고로 同人을 代表하여 歡迎의 뜻을 表하며 여러분이 向하야는 우리와 一體로, 사랑하여 주시기를 希望합니다.”

66) 정영진, 앞의 논문, 115면. “『창조』 역시 동인 이외의 작품을 받지 않는 대신 투고 작품은 동인들의 추천 과정을 거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문단에 나온 사람이 방인근이었다.”

로 작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둘째, 각 문예지가 시도한 독자 참여 제도는 이전 시기의 제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초기의 제도는 사상과 문학이 미분리된 탓에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거나 점차 문예에 집중하였다. 응모규정도 후기로 갈수록 구체화, 전문화되며 제도적인 기틀을 갖추어 나갔다. 『청춘』은 이전 시기 아동잡지에서 시도한 작문 교육을 계승하여 조선어 글쓰기를 확산하였다. 『소년』의 〈소년통신〉은 고전 수집을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조선문예』로 이어진다. 『조선문예』 현상문예의 모집 부문이었던 한시는 『매일신보』에 이어 신춘문예의 모집 부문에 포함되며 그 명맥을 이어나간다. 『창조』는 『태서문예신보』의 작품첨삭부를 계승하여 독자의 글을 평가 시도하였다. 그리고 『창조』의 추천 방식은 이후 『영대』와 『조선문단』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등단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1910년대 독자 참여 제도는 조선어 글쓰기의 확산, 문체의 정립, 문예의 보급, 작가 발굴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직간접적으로 문단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청춘』과 『태서문예신보』는 독자 참여 제도를 통해 조선어 글쓰기를 확산하였다. 당선작을 선본으로 제시하고 독자들의 조선어 글쓰기를 추동함으로써 시문체 정립에 기여하였다. 이는 문단 성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사조』, 『서광』, 『삼광』, 『녹성』은 문예를 포함한 다양한 근대지식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문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해를 도왔다. 『신청년』과 『창조』는 신문학 개척을 목적으로 독자 참여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신인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소년』, 『붉은저고리』, 『아이들보이』, 『청춘』, 『근대사조』, 『조선문예』, 『대서문예신보』, 『신청년』, 『창조』, 『삼광』, 『녹성』, 『시광』, 『영대』, 『조선문단』,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2. 단행본

권두연,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표언복 편, 『전영택전집』 제3권, 목원대출판부, 199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3. 국내논저

강남주,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정 연구-대서문예신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김석봉, 「식민지 시기 『동아일보』 문인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4.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노경희, 「1910년대 조선총독부 참서관실의 한국문헌 수집과 정리 연구」, 『대동한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3), 대동한문학회, 2016.
박현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손동호, 「식민지 시기 『매일신보』의 신년현상문예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회, 2019.
손동호,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연구」, 『우리문학연구』 67, 우리문학회, 2020.
손동호, 「신문관 발행 잡지의 독자 참여 제도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9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 손동호, 『『청춘』의 현상문예와 근대 초기 한글운동』, 『인문연구』 9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신지연, 『『청춘』의 독자문예란 연구』,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 양문규, 「1910년대 잡지 매체의 언어 선택과 근대독자의 형성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 윤정원, 「한국 근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 1889~1945」, 『서지학연구』 14, 서지학회, 1997.
- 이경현, 『『청춘』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문학』, 『한국문화』 4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 이희정, 「192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 형성과정과 제도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회, 2011.
- 정영진, 「동단제도의 정착 과정과 근대 문단의 형성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정우택, 「『문우』에서 『백조』까지-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 주승택, 「《조선문예》 고」, 『진단학보』 62, 진단학회, 1986.
-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11(4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 황혜진, 「잡지 『청춘』 독자투고란의 어문교육사적 연구」, 『작문연구』 4, 한국작문학회,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 of Reader Participation in
Modern Korean Literary Magazine
— Focusing on the 1910s

Son, Dong-H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ader participation system of literary magazines in the 1910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reader participation system were diverse. “Cheongchun” and “Taesomunyesinbo” spread Korean writing and established a ‘current style of writing’. “Joseonmunye” revived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lassic and collected classics. “Geundaesajyo”, “Seogwang”, “Samgwang”, and “Nokseong” introduced modern knowledge and disseminated art. “Sincheongnyeon” and 『Changjo』 implemented the system to pioneer new literature. Second, the reader participation system attempted by literary magazines inherited and developed the previous system. The initial recruitment categories mixed ideology and literature, but gradually focused on literature. The application rules also became more specific and specialized as time went on,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as established. Third, the reader participation system contributed directly and indirectly to the formation of the literary world by achieving results such as the spread of Korean writing, establishment of a literary style, popularization of literature, and discovery of writers.

Key words: the System of Reader Participation, “Cheongchun”,

“Taeseomunyesinbo”, “Joseonmunye”, “Geundaesajo”,
“Seogwang”, “Samgwang”, “Nokseong”, “Sincheongnyeon”,
“ChangJo”

투 고 일: 2024년 12월 6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